강진군 농기계 임대료 50% 할인, 6월까지 쭈욱

유류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 상승 판단 연장키로
지난해 3827명 농업인 9160여 만원 감면 혜택

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올해 6월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군은 당초 임대료 감면 기간을 지난해 12월까지로 정했으나 코로나19 상황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류비 상승으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갈수록 높아진다고 판단, 감면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값비싼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농업인들의 효자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3,827명의 농업인에게 9,160여 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주어졌으며, 2021년 대비 임대율이 약 25% 증가했다. 올해 역시 농가 경영비 절감과 임대율 향상이 예상된다.

현재 강진군은 53종 532대의 농기계를 보유·임대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본소, 칠량분점, 도암분점, 작천분점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전화나 사업소 방문 외에도 센터 홈페이지(https://gangjin.amlend.kr/aml)와 모바일 앱(스마트농기계임대)을 통해 보유 기종을 확인할 수 있고, 사용 예약도 가능하다.

정동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료 감면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와 적기 영농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코로나19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061-430-3675~7), 칠량분점(☎430-3678), 도암분점(☎430-3690), 작천분점(☎430-3670)으로 하면 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 건강한 맛 '해양치유 밥상' 매뉴얼 개발 박차

완도군은 지난 3일 해양치유밥상 매뉴얼 개발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해양치유밥상은 '전복 해조류 떡갈비'와 '색깔보리 톳밥'을 메인 메뉴로 개발하여 2021년 11월 신지면에 소재한 모래뜰 식당을 해양치유밥상 1호점으로 지정했다.

해양치유밥상 1호점에는 연간 만 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양치유밥상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힐링 음식으로 호평받고 있다.

이번 해양치유밥상 매뉴얼 개발 방향은 지역 농수특산물인 전복과 해조류, 유자, 비파를 활용한 치유 효과가 있는 메뉴,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특화 음식 개발에 있다.

해양치유밥상 1호점에 이어 2호점은 횟집에서 전복과 회를 단품 메뉴화하고, 레시피 다양화, 가격 차등화 등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해양치유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참여자 및 해수욕장 이용자가 바닷가 등 야외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과 포장을 차별화하고, 여행 트렌드와 고객 성향을 겨냥한 도시락도 개발할 예정이다.

신우철 군수는 "장보고수산물축제와 전남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다양한 메뉴 개발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음식도 트렌드에 맞게 변화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군에서도 완도만의 치유 음식을 개발하는 데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장흥군과 군공무원노조가 청렴도 상위등급 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흥군, 청렴도 상위등급 도약 위해 노조와 '맞손'

장흥군-군공무원노조, 종합청렴도 상위등급 진입 업무협약

8일 장흥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성 장흥군수, 최근영 장흥군공무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간부진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양측은 협약서를 교환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고 군민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해 청렴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관행과 위법행위는 철저히 근절하고 악성 민원인은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영 장흥군노조위원장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렴문화 확산에 노조원과 한 뜻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 장흥군수는 "청렴은 의무가 아니라 생활이다. 노사와 한팀을 이뤄 청렴문화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지역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 부정부패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장흥군, 동계 훈련팀 30곳 유치…지역경제 활력 더해

2023년 새해 장흥군을 찾은 동계 전지훈련팀이 30곳을 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장흥군은 최근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육상, 소프트테니스, 축구 등 동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있다.

장흥은 겨울철 온화한 날씨와 쾌적한 환경으로 동계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평가 받고 있다.

전지훈련팀 중에서는 유소년 축구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정남진리조트축구장과 장흥초·중학교에서 24개 축구팀 500여 명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육상, 소프트테니스, 태권도 팀도 현재 동계 훈련을 실시하거나, 앞으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흥군은 훈련 없는 시간을 활용해 안중근 의사의 위패가 모셔져있는 해동사를 찾아 참배하는 등 역사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군은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선수단과 가족들이 지역을 방문해 음식점과 숙박업소, 마트의 매출은 물론 지역 특산품 판매도 늘고 있다.

장흥=김도영 기자

진도군, 인스타그램 새해 SNS 이벤트 개최

진도군이 2023년 새해를 맞아 진도군 공식 인스타그램 SNS 이벤트를 개최한다.

진도군 공식 인스타그램의 이벤트 게시글에 2023년 새해 소원을 댓글로 남기고, 게시글의 좋아요, 진도군 인스타그램 팔로우 신청, 친구 소환까지 완료한 참가자에게 명량해상케이블카 탑승 교환권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진도군 인스타그램을 통해 새해에 이루고 싶은 소원 등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새해 소원 말하기 이벤트는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14일간 진행되며, 참여자 중 100명을 랜덤으로 선정해 명량해상케이블카 교환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당첨자 발표는 1월 20일(금) 진도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1월 27일까지 당첨자에게 경품을 발송한다.

진도군 기획홍보실 관계자는 "계묘년의 힘찬 시작을 진도군 SNS와 함께 소원성취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해남군 "땅끝누리 늘찬배달강좌 신청하세요"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학습강좌'…13일까지 신청 접수

해남군은 1월 13일까지 땅끝누리 늘찬배달강좌에 참여자를 모집한다.

올 상반기 강좌는 2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13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음악, 국악, 악기, 미술, 공예, 요가, 언어, 소양 교육 등이며 군민 10인 이상이 학습팀을 구성해 필요한 강좌를 해남군 평생학습관이나 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https://www.haenam.go.kr)와 평생학습관(☎061-530-5719)으로 문의하면 된다.

땅끝누리 늘찬배달 강좌는 강사가 직접 학습자에게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매회 100팀 넘는 참여자들이 몰리며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직장인들이나 교통여건이 불편한 면단위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주민들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산하는 기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은 늘찬배달 강좌 모니터링단도 운영, 평생학습매니저들이 학습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학습 현황 점검과 함께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늘찬배달강좌가 해남에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만큼 삶과 학습이 어우러지는 평생교육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군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